

'완주예술공간' 오픈하우스 개최

주민·예술인 위한 문화예술공간... 오픈닝 퍼포먼스·공간 라운딩·미디어전시 등 진행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5일 오전 10시에 '완주예술공간'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완주예술공간'은 옛잡종장 관사로 사용되었다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폐공간을 주민과 예술인이 창작하고 향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됐다.

'완주예술공간'은 총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기 다르게 운영된다.

1동은 주민공유문화공간으로 완주문화도시 아카이브자료열람 및 주민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있다.

2동은 예술인 작은문화공간으로 회의공간, 단기공유작업실, 소규모발표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3동은 예술인 창작레지던시 공간으로 3~4월은 공간포스터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4월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예술공간 1동 앞에서 진행됐으며, 오전 10시 오픈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공간 라운딩이 이어졌다.

오픈닝퍼포먼스는 지난해 '완주한달살기'에 참여했던 예술가 5인이 함께하며, '개구리, 임 떨어졌다'라는 사운드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알리는 개구리의 첫 울음처럼 예술공간의 새로



(재)완주문화재단은 5일 오전 10시에 '완주예술공간'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운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다.

공간 라운딩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예술공간의 내부를 둘러보며 각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복합문화지구 내에 또 하나의 폐공간이었던 '갤러리 잠'도 함께 오픈하여, 미디어전시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추운 겨울이 지나 경칩을 맞이하는 이 시점, 얼음이 깨

지고, 물이 흐르고, 곤충들이 울음소리를 내는 따스한 봄의 시작처럼 '완주예술공간'이 문화예술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민과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w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063-262-3955)으로 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고창군이 지난 4일 저녁 '2025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강했다.

고창군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 개강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 무료 진행

고창군이 지난 4일 저녁 '2025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강했다.

고창군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는 3~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판소리 아카데미는 3~4월 강산제 심청가(명사 유영대, 명창 김영자, 명고 박근영), 5~6월 동조제 춘향가(명사 최동현, 명창 송재영, 명고 박시양), 7~8월 남도민요(명사 김익두, 명

창 박양덕, 명고 김청만), 9~11월 동편제 흥보가(명사 최혜진, 명창 이난초, 명고 조용안) 판소리 눈 대목을 배워 볼 수 있다.

나윤옥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고창 방문객들에게 판소리 체험공연과 판소리 버스킹을 진행하여 고창을 '판소리 성지 고창 K-culture, K-POP의 본향'으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박물관, 다양한 영화로 지역민과 소통

매주 목요일 다양한 주제 '목요시네마 뮤즈' 3~12월 무료 상영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엄혁용)이 '목요시네마 뮤즈'를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목요시네마 뮤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전북대 박물관 강당에서 상영된다.

오는 6일 오후 2시 개막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영에 들어간다. 전북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며, 상영 일정과 세부 내용은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https://museum.jnu.ac.kr>)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상영 주제는 △3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트리플F등급 여성영화' △4월 '연론에 대한 담론' △5월 '미장센 애니메이션' △6월 '미식영화' △7월 '한국 Y2K 청춘 감성영화' △8월 '이민자의 삶' △9월 '작가들의 전기영화' △10월 '한국독립영화' △11월 '패션의 역

사' △12월 '중세영화로 본 전쟁과 신념' 등이다.

엄혁용 박물관장은 "'목요시네마 뮤즈'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예술적 감각을 넓히고 사회적 이슈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박물관 학예실(063-270-408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마한박물관,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참여단체 모집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상반기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참여단체 5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5월 운영되며, '장수를 기원하는 목 목걸이'와 '행운을 담은 솟대 모양 자개풍경종' 등 만들기 체험과 학예사의 해설이 있는 전시 관람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익산 지역을 배경으로 구석기에서 마한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마한 사람들이 신성한 동물로 여긴 '새', 금과 은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옥'과 관련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마한박물관은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학예사가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10인 이상의 60세 이상 어르신

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마한박물관(063-859-4827)에 전화 신청 후 진행 일정을 협의하면 된다.

마한박물관 관계자는 "벚꽃과 철쭉이 만개한 서동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박물관에서 마한 사람들의 보물에 대해 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박물관이 어르신들의 유익한 휴식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강좌 '청출어람' 수강생 모집

11월까지 총 25회차 16개 과목 운영... 10~20일 온라인·방문 접수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에서는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2025년 일반인 대상 국악강좌 '청출어람'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 '청출어람'은 초급·중급·단일 강좌로 구성되며, 대금·해금·가야금·아쟁·한국무용 등 전통악기 및 무용 강습과 판소리(춘향가·흥보가), 민요, 가야금병창 강좌 등 총 16개 과목을 운영, 국악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여 아쟁, 민요, 풍과리, 장구 강좌가 새롭게 개설, 이를 통해 전통 타악과 성악 강좌가 한층 확대되었다.

수업은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단원과 외부 전문 강사진이 기초 실습부터 심화 학습까지 체계적인 국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으며, 강습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방학 기간(7~8월)을 제외하는 총 25회 차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10만원(1회당 4,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활근로 등은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강신청은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립민속국



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 자세한 강좌 일정 및 모집 요강은 전화(063-620-23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현 원장은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